

5월 12일. 마음

오늘도 일어나서 학원에 갔다 학원을 마치고
집으로 와서 밥을 먹고 쇼파에 앉아 잠시 휴식을 가진 뒤
내방으로 왔다. 과감은 참 지치고 시간도 빨가고
너무 힘든 것같은 생각이 문득 들었다. 5월이래 봄바람이 불고
몸이 나른해지고 정신도 헤어헤져 정신을 못차리는 것 같다.
179일 밖에 안남았다!!! 꼭 호텔리어가 되어지나날!!
오랫만에 안개를 써보니 감회가 새롭다. 능성 정말 초등학교때
써본건 처음 써 본다. 초등학교 때도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
자도 변한 건 없는 거 같다. ^!
오늘의 일기 끝~!!!